

어머니, 당신이 잠 못 이루고 돌아누울 때 저도 그 쪽으로 돌아눕습니다

이곳 화천에는 큰눈이 내렸습니다.
날카로운 철책 위로 눈꽃이 피었습니다.
흰눈이 남북을 가로막는 휴전선을 지우듯이
남북이 평화의 길로 가는 것이 먼 미래만은 아니겠지요.
오늘도 점호가 끝나고 취침 나팔이 울리면
저는 어머니가 계신 남쪽으로 돌아누울 겁니다.
부디 건강하게 계십시오.
제가 떠날 때 어머니께서 흘리셨던 눈물,
2년 뒤에 돌아가 건강한 제 모습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.

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 마음,
자식을 군대 보낸 노무현은 압니다.



오늘, 노무현과 만납니다
후보연설: MBC-TV 21:50~22:10
찬조연설: KBS1-TV 18:40~19:00

12.12(목)~12.14(토)는 부재자 투표일입니다.
당신의 한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.

새로운 대한민국 -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■ 국민의 소리를 듣습니다 1588-2002

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입니다.

새천년민주당

2 국민후보 노무현

34062